

자태는 우연의 산물이 아닐지도 몰랐다. 점심을 먹고 나서 매번 커피숍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돌려 근처 숲으로 향했다. 어느새 난 나무 속을 걷기 시작하여 옆에 낀 책을 꺼내 음미했다.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 어느 날 나무가 곁으로 왔고 삶을 가르쳐 주었으며 결국 저자의 나무처럼 살고 싶다고 다짐하게 되었다는 파노라마가 내게도 펼쳐지는 듯해 타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가슴이 시원해지는 해방감이 밀려왔다. 책은 단순히 나무의 특성을 열거한 것에 집중하지 않았다. 나무를 인생에 빗댄 저자의 잔잔하면서도 눈부신 철학이 스며있었다. 다 비슷해 보이는 나무들의 개성은 뚜렷했고 그것의 형성 과정과 사연이 인간의 삶과 참 닮아 보인다는 동질감이 들었다. 30년간 아픈 나무를 돌봐 온 이름도 생소한 ‘나무 의사’인 저자가 나무에 보인 정성과 땀, 눈물은 마치 한 인간에 대한 존중과 배려, 어쩌면 그 이상일지도 모른다는 경외감이 그윽하게 밀려왔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내 인생에서 이어져 온 나무와의 인연을 떠오르면서 앞으로의 기대감도 더해졌다.

초등학생 시절 내성적이었던 난 늘 혼자였다. 가난이 이유였다. 늘 같은 옷을 입고 같은 반찬을 싸 오는 나를 친구들이 탐탁지 않게 여긴 거였다. 어떻게 하면 친구들과 가까이 할 수 있을지 고민했지만, 방법을 찾을 수 없어 절망만 하고 있었다. 그런 내 모습을 보고 담임선생님께서 재배부장이라는 직책을 맡기셨다. 학교의 나무를 돌보는 일이었는데 모과나무의 첫인상은 강렬했다. ‘이렇게 못생긴 열매를 달고 있는 나무는 얼마나 서글플까?’ 하지만 선생님께선 미소를 지으셨다. “나무를 키우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장점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처음에 관리 방법을 몰라 막연했을 때 이것저것 관련 서적을 찾아보며 나무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 열정을 친구들이 지켜보며 하나둘 내 곁엔 ‘사람’이 자리 잡게 되었다. 참 묘한 순간이었다. 정말 선생님의 말씀처럼 친구들도 내 외형이(가난) 아닌 내면을 바라보게 된 것이었을까? 그때부터 난 사람은 겉모습이 아닌 내면이 중요하다 생각하게 되었다. 나무와 함께하던 어느 순간 나무와 소통할 수 있게 된 저자의 환희가 이와 같지 않았을까? 어쩌면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도 나무 한 그루가 자라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달콤하고 예쁜 꽃·열매를 바랐던 내 나무엔 모진 풍파로 메달라가는 잎만 남게 되었다.

공직 입문 시기도 새삼스레 떠오른다. 당시 난 밤나무 같은 특성으로 누군가의 조언을 컛등으로 듣고 독불장군처럼 성미를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래서 동료·민원인과의 마찰이 유난히 많았던 ‘공무원의 사춘기’ 시기였다. 어렵게 들어온 공직을 관두려고까지 했으니,